



현재

옥동중 2-6 이유빈

오늘도 나는 단어장 챕터를 펼친다.

그러다 나의 눈동자에 비친 단어, present

단어의 뜻을 보고 난 깊은 생각에 빠진다.

나의 눈동자에 비친 건 단지 단어가 아닌 나의 삶인가 보다.

매 순간순간은 우리를 성장시킬 선물이다.

언젠가 현재는 과거가 되고 미래도 과거가 될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기본 단어를 모르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실력에 뽕뽕 뚫린 구멍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기초를 탄탄하게 하여 실력을 쌓아 올리듯

우리는 과거를 기반으로 천천히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나는 하루하루로 나만의 챕터들을 만들어 나가며

나의 미래를 향해 한발 한발 나아가는 진행형이다.



언젠가 이 선물 같은 하루하루가 모여 비로소 나는 나의 챕터들을 완성시킨다.

나의 선물들이 담긴 책을 보기를 기대하며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

